

국제통상의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성과*

안덕근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장

국제통상 전공은 국제대학원의 설립과 함께 도입된 신설 학제이나 지난 2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현재 사회과학 분야에서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정책 및 실무적 활용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이론 연구가 융합된 다학제적 특성을 가지는 국제통상 전공의 발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정을 거치는 시기 양성된 실무적 식견과 경험이 겸비된 경제학자들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국제통상 전공의 핵심 공동학사과정을 수립하고, 심도있는 다학제적 연구교류의 장을 발전시키고, 전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전공의 보다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제통상, 국제대학원, 무역, 국제경제

* 본 논문의 집필에 도움을 준 연구재단 SSK사업(NRF 2014S1A3A2043505) 및 서울대 아시아연구소(SNUAC-2016-008)의 연구지원에 감사한다.

I. 국제통상 전공의 형성과 성장

우리나라의 대학교과과정에서 국제통상¹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세계화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의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사업” 일환으로 1997년 국제대학원이 주요 대학에 설립되면서부터다. 당시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신설 국제대학원들에서는 국제통상 전공이 국제협력 또는 국제관계 전공과 함께 설치되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1997년 1월 협동과정으로 시작되었는데 이후 2003년 3월 2일 국제대학원으로 확대·개편되면서도 학사 전공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7).

국제통상 전공은 당시로서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었는데 1996년 국제통상 학회가 국제경제 — 특히, 국제무역 분야의 학자들 중심으로 결성되기 전에는 대부분 국내에서는 무역학 또는 국제경제학 전공이 대학 학사전공 분야로 인정되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사회과학대학에 경제학과와 별도로 무역

-
1. 국제통상 전공은 영문으로 International Commerce로 흔히 표현되는데, 이에 따라 국제무역을 International Trade로 일반적으로 번역하면서 통상과 무역에 대한 어휘적 차이를 구분 짓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되었다. 실제로 영어권에서도 Commerce라는 표현은 드문데, 예를 들어 수많은 교재들이 ‘International Trade’라는 제목으로 출간되는데 반해 ‘International Commerce’라는 제목의 교재는 아마존에서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국제무역론 분야의 선도적 학자들인 Kyle Bagwell and Robert Staiger가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Volume 1A-1B*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ume 4*(G. Gopinath, E. Helpman, and K. Rogoff [eds.], Amsterdam: Elsevier, 2014)와는 별도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WTO(World Trade Organization), FTA(Free Trade Agreement) 등의 주제를 다루는 첨단 연구들을 집대성한 책을 출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이러한 주제들이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또는 무역정책(trade policy)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대학원 수준의 무역론 교재로 흔히 사용되는 *Lectures on International Trade*(J. Bhagwati, A. Panagariya, and T. N. Srinivasan, 2nd edition, Cambridge, MA: MIT Press, 1998)나 *Advanced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Evidence*(Robert Feenstra, 2nd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등이나 최신 연구를 편찬한 *The World Trade System: Trends and Challenges*(Bhagwati, J., P. Krishna, and A. Panagariya [eds.], Cambridge, MA: MIT Press, 2016)에서도 International Commerce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학과가 전신인 국제경제학과가 있었으나 1995년 10월 두 학과는 경제학부로 통합되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통상 전공이 국제대학원의 핵심 교과과정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국제적 소양을 갖춘 실무인력의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통상의 주요 학사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전공 교육을 위해서는 교수진이 어떠한 학문적 소양과 배경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과제로 대두되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후반 국제통상 전공이 우리 대학교과과정에 대두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통상전문가들이 다수 배출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점이다. 특히 1986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국제무역 전공의 경제학자들이 정부 자문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통상협상 실무 경험을 갖추게 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무역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은 국책연구소 연구원 신분 또는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당시 대폭적으로 확대된 UR의 다양한 협상 분야에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면서 국제통상 분야의 협상실무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협상의 기밀 유지 등 사유로 외국의 경우 학계 인사가 정부의 통상실무에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감안할 때, 국책연구원 체제와 학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우리 정부의 독특한 정책관행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그룹 양성에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통상전문가들 중 대표적인 학자가 박태호 교수로서 위스콘신 대학교의 저명한 무역이론분야 석학 Robert Baldwin 교수의 최초 한국인 제자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당시 한국인 출신 경제학자로는 매우 드물게 워싱턴 D.C.에 소재한 조지타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는데, 이는 무역이론 분야에서는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배출된 경제학자 중 최고의 학문적 장래성을 보인다는 점이 경제학계에서 인정받은 것을 시사한다.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 세계은행의 다양한 무역정책 관련 연구 사업에 외부 전문가

2.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http://econ.snu.ac.kr/about/history>(검색일: 2017. 5. 9).

로 참여하면서 워싱턴의 많은 정책전문가들과도 폭넓은 관계를 확보하였는데, 이는 귀국 후 국내에서 통상정책분야에 헌신하면서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으로 자리를 옮겨 대외경제 분야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고, 1989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설립된 후 부원장,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국제통상 분야 정책연구 및 정책 실무를 선도했다. 특히 UR 협상과정에서 정부자문 역할을 맡아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 과정의 역사와 통상협상 실무에도 정통한 식견을 갖추게 되었다. 1997년 3월 박태호 교수가 갓 출범한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에 합류하면서, 당시 다소 성격이 모호하던 국제통상전공이 목표로 하는 교육의 지향점이 최소한 서울대학교에서는 수립되었다. 국제대학원 설립 시 목표로 제시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력의 전범(典範)을 제시함으로써 통상협상을 중심으로 초기에 출범한 국제통상 전공의 기틀을 확립하였고, 이후 국제무역이론과 통상법, 통상정책 뿐만 아니라 국제경영, 국제금융 등을 다각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형태의 전공과정으로 발전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2007년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2011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여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공격과 수비 기능을 모두 관장해 본 유일한 경험은 국제통상전공에서 통상정책 차원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예일대학교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통신서비스협상을 담당하던 최병일 박사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에 합류하였고, 산업자원부 국장까지 역임하고 소르본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안세영 박사가 서강대 국제대학원에 합류하는 등 이론과 실무 분야의 탄탄한 경륜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초창기 국제대학원으로 영입되면서 국제통상전공을 이끌게 된 점은 기존의 무역전공이나 국제경제전공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다학제적 학사과정 정착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후 국제통상전공과정은 다양하게 전문화되고 특성화되었는데, 학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경제학을 중심으로 법학, 경영학, 정책학 분야를 아우르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국제무역을 다루는 국제규범부터 정부의 통상정책, 관련 산업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경영전략, 국제금융 측면의 쟁점 등을 폭

넓게 다루게 되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다수의 대학들에서 국제통상학과가 설립되었는데, 기존의 학사과정에 새로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무역학이나 경제학과를 개편하는 형태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다수 국제통상학과가 경제학 위주의 학사과정에 일부 법학, 경영학, 무역실무가 추가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한편, 실질적으로 국제통상전공의 본격적인 운영 토대가 된 국제대학원이 일반대학원이 아니라 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되면서 학부에서 설립된 국제통상학과와 학사 관리상 연계성이 다소 약화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II. 학술 이론과 정책 적용의 융합적 특성

국제통상 전공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의 적용성이 높은 학술 분야라는 점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산업구조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 국제통상 전공은 갈수록 중요성과 활용성이 증가할 학문분야로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국제대학원에 주력 학사과정으로 제공되는 국제통상전공의 경우 국제협력, 지역학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다학제적인 틀 속에서 통상실무가 다루어지는 장점이 있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국제통상 문제를 다루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최근 중국 정부에 의한 사드 보복 조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압박 조치로 초래된 대외관계의 혼란은 본질적으로 다원적인 통상문제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방법을 갖춘 국제통상 전공의 필요성과 활용성을 부각시키는 좋은 사례이다.

국제통상 전공은 순수 경제학 이론이나 무역실무 분야와는 다르게 정부의 통상정책 및 전략 수립에 직·간접적인 적용성이 매우 큰 주제와 영역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실사구시적 성격이 사회과학의 어느 분야보다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적용성은 엄정한 이론적 뒷받침을 토대로 수립되는 것으로서, 자칫 정책적 판단이라는 재량성이 남용될 소지가 큰 영역에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무역론 분야에서는 최근 Robert

Staiger, Kyle Bagwell 등의 교수들이 주도하여 기존 경제이론에서 주목하지 않던 WTO 체제의 핵심 통상규범이나 분쟁해결기구 등 제도적인 측면의 사안들에 대한 경제이론적 분석을 심화하고 있다.³ 국내에서도 서울대 경제학부의 박지형 교수가 이러한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⁴ 향후 국제통상 전공에서 이와 같은 학문적 성과의 활용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국제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국제통상 전공의 경우 대부분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이 함께 학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연구의 저변이 잘 구축되어 있어 향후 학문적 발전의 잠재성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학문적 환경은 사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드문 경우로서, 다학제적으로 구성된 학사과정을 실질적으로 특성있는 연구 성과로 이어가는 작업은 국제통상 전공이 해결해야 할 미래의 핵심과제이다. 국제통상이라는 신설 전공이 학문적 경쟁이 치열한 사회과학 분야,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의 견제에 매몰되지 않고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존립, 발전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책 활용성이 높은 연구 주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역량에 달려있다. 또한, 이와 같은 독특한 영역에서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교수진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통상 전공의 태동과 확립기에 박태호 교수의 기여는 핵심적이라고 평가된다. 정책연구원과 청와대를 거쳐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통상교섭본부장 직책을 역임하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통상정책 분야에 기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드문 경우로서, 이명박 정부는 2013년 한국 출신 인사로는 두 번째로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WT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시켰다.⁵

박태호 교수와 같은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들이 국제통상 전공의

3. Staiger 교수와 Bagwell 교수는 국제무역론 분야에서 범경제학적 연구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선도하고 있는데 *The Economics of the World Trading System*을 필두로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출간해오고 있다.

4. Jee-Hyung Park, "Enforcement and Dispute Settlement," in Kyle Bagwell and Robert Staiger (eds.),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Volume 1B* (Amsterdam: Elsevier, 2016) 참조.

5. 최초의 사례는 WTO 출범 당시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으로서 WTO 초대 사무차장으로 재직하였다. WTO News Press/16, 3 July 1995,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95_e/3_15.htm(검색일: 2017. 5. 9).

학사과정을 맡게 되면서 이론과 정책의 균형 있는 분석을 다룬다는 학사과정의 정체성에 대해 외부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전공의 교수진들에 의한 활발한 정책분야의 연구들이 국제통상 전공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정책적 활용성이 큰 연구 성과는 국제통상 전공 교수진들이 통상정책과 관련되는 정부의 다양한 위원회나 비상임 직위를 맡아 실무에서의 식견과 경륜을 심화하는 자산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통상정책 연구가 주로 하버드 대학교 Kennedy School이나 미시간 대학교 Ford School과 같은 정책대학원에서 다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통상 전공은 예외 없이 국제대학원의 핵심 학사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유럽의 경우 통상 전공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국제대학원이나 정책대학원이 흔치 않으나, WTO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자리 잡은 제네바 국제대학원의 경우 국제통상 전공이 주요한 학사전공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국제통상 전공에 온전히 특성화한 석사과정으로 스위스 베른에 소재한 World Trade Institute의 Master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과정⁶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Policy 법학석사 과정⁷을 들 수 있다. 두 과정 모두 WTO 협정을 중심으로 학사과정이 구성되어 있는데, 협정의 성격상 대부분 법학자 중심으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으나 가급적 경제학자들을 최대한 포함하여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접근방법과 연구 방식을 전달한다.

학사과정 운영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유럽에서만 현재 이러한 방식의 교육이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고 있는 국제통상 전공의 경우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다학제적 학사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통상 전공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 전문가들이 정책적인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창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6. World Trade Institute, <https://www.wti.org>(검색일: 2017. 5. 9).

7. The University of Barcelona's Master of Law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Policy, <http://www.ielpo.org/index.asp>(검색일: 2017. 5. 9).

III. 국제통상 실무 영역의 확대

국제대학원이 정착되면서 국제통상 전공의 졸업생들이 사회 각지에 포진하게 되었는데, 국제업무 분야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경우 국제통상 전공자들은 졸업 후 약 78%가 국제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⁸ 2000년대부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국내 시장으로 해외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국제통상 전공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등 무역 관련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등에서도 국제통상 전공자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통상의 영역이 상품 수출입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전반과 투자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실무 분야에서의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 부문으로서, 무역 또는 통상 전공과는 다소 이질적으로 간주되던 금융서비스 산업이 국제통상 규범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서 국제통상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산업으로 부상되었다. 현재 금융서비스 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통상협상의 초점은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다루기 위한 디지털 무역규범의 수립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이 분야의 경우 기존의 무역규범의 근본원칙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무역협상(Trade in Services Agreement)이 진전되는 경우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국제통상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현저한 국제통상 전공자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보인 부문은

8.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gsis.snu.ac.kr/career/statistics>(검색일: 2017. 5. 9).

정책연구원들이다. 대표적인 국제통상 전공자들이 주로 국제대학원의 석사 과정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통상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는 물론이고,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국책연구원들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의 비중이 대폭 증가되었다. 이는 이러한 국책연구원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연구소의 성격을 가지는 바, 경제학 전공자들만 연구원으로 임용하던 과거의 관행을 감안할 때 상당히 전격적인 변화라고 평가된다. 즉, 국책연구소들의 국제통상 분야 연구에 있어 순수 경제학 전공자들과는 차별화되는 국제통상 전공자들의 비교우위가 실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고시에서 국제통상직렬이 마련된 것도 국제통상 전공에 대한 관심 증대에 기여하였다. 국제통상직렬 필수 시험과목으로 국제통상법 내용이 중심이 된 국제법과 국제경제학이 포함되면서 일반적으로 국제통상 학사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국제통상 전공자들의 공직 진출도 증가하게 되었다. 통상 관련 공무원들 중 국제통상 전공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행정고시 준비과정에서 국제통상 전공에서 제공되는 수업을 수강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매우 높은 비중의 국제통상직렬 공무원들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상 전공분야의 발전과 함께 주목을 받게 된 분야로 국제통상법 분야를 들 수 있는데 법무 인력의 수요가 확대된 점도 주목할 특징이다. WTO의 설립과 함께 주목받게 된 국제통상법 분야는 국제통상 전공의 일부로 흡수되면서 전공학생들에게 법무 실무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조하게 되었고, 다수의 졸업생들이 국내 또는 해외의 로스쿨로 진학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국내 법률시장에서의 국제통상 분야에 대한 법무 비즈니스 규모는 아직 크지 않아 향후 본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직 국내에서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분야로 국제통상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들 수 있다. 기업이나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국제통상 관련 사안의 상당 부분이 기본적으로 대정부관계 업무인데 직접 이러한 대관업무를 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있는 바,⁹ 정부의 유관 부처들과 소통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FTA 등의 국제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수요가 크다. 그 뿐만 아니라 반덤핑 조치 및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가 남발되는 현시점에서 다각적인 사업 대안을 검토하고 수급 및 투자전략을 재검토하는 경영전략 차원의 국제통상 컨설팅 서비스는 해외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다학제적인 국제통상 전공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공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유관 분야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제통상 컨설팅 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V. 국제통상 전공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국제통상 전공은 한국 경제와 산업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갈수록 다면화되어가는 세계통상체제의 추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 대학 교과체제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할 분야이다. 특히 여타 사회과학 교과과정과는 달리 다학제적으로 구성된 전공의 특성은 국제 법규, 정부의 정책, 산업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국제통상 현안을 다루는데 매우 유용한 바,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가 확대되는 보다 응용력이 뛰어나고 전문화된 인력 양성에 장점이 있다. 최근 기술공학 분야에서도 사회과학적 분석이나 경영전략 교육을 융합한 교과과정을 도입하는 등 학제 간 경계를 허물어 종합적인 분석 능력을 고양하는 학사과정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종의 융합과정으로 성장해 온 국제통상 전공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꾸준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국제통상 전공

-
9. 국내에서는 대관업무를 주로 로펌에서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유치하여 부수적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로비 회사나 컨설팅 회사를 통해 대관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와는 대비된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컨설팅 회사가 설립되거나 회계법인에서 국제통상에 특화된 본부를 설치하는 등 국제통상에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가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나, 이러한 분야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과 시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향후 제대로 위상을 갖추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국제통상 전공의 핵심 기준이 되는 공통의 학사과정에 대한 공감대 수립이 필요하다. 대부분 국제통상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경우 각기 출범 당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학사과정을 수립하고 있어 아직 국제통상 전공이 확고한 별개의 학문분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학사요건에 대한 공통분모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국제통상 전공이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학문적 특성과 효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만간 전공분야의 특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소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학사과정에서 구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통상 전공 분야 교수진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학교별 특성이나 차별성을 인정할 필요도 있으나 국제통상법, 국제경제학 및 국제경영학의 분석방법이 융합됨으로써, 기본적으로 국제경제이론에 입각하여 통상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국가 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규범의 형성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고 국제통상체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 차원의 통상전략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통상 전공을 독자적인 학문의 분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고유한 연구역량의 축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 국제통상 분야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연구과제와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사회과학 분야와 비교할 때 학계에서 인정할 만한 국제통상 전공을 대표하는 학술지나 학술대회 등의 확립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¹⁰ 즉, 국제통상 전공 자체의 중요성이나 의의는 다학제적 융합 특성에 있는 반면, 전공분야의 연구역량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존의 경제학, 법학, 경영학 등의 연구체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상 전공의 적절한 연구역량의 확보를

10. 현재 한국국제통상학회(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KATIS)가 국제통상분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경제학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회의 외연적인 확장이 필요하다. 동 학회에서 출간하는 『국제통상연구』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국제통상 전공을 대표하는 국제 학술지로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위해서는 경제학 또는 법학 등 해당 개별 연구 분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국제통상 전공의 고유한 연구 관심과 주제를 다학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술적 소통과 육성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학문으로서의 장기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향후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국제통상 전공에 참여하는 국내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교류하면서 학문적인 성과를 나누고 발전 방향을 토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사과정의 정비와 함께 수반되어야 할 부분은 국제통상 전공 출신들에 대한 사회 각 분야별 전문 인력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거듭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통상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산업 구조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론과 실무 분야의 다학제적 교육을 받은 국제통상 전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 진출단계에서는 국제통상 전공의 비교우위가 적절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괴리를 보인다.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무역보호 조치가 남발되고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등 통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다양한 산업계의 우리 기업들이 국제통상 전문 인력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잘 드러난다.¹¹ 산업계와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체계 구성을 통해 국제통상 전공 인력들의 활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제통상 전공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여타 전공에 비해 영어강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국제대학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어강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학부의 국제통상 전공에서도 다수의 학교들에서 영어강의를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이는 국제대학원이 도입될 때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채택된 정책이었으나, 이후 많은 국내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학사과정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 교원 충원을 늘리고 영어

11. 수출에 주력하는 국내 대기업들 중 상당수가 최근 국제통상팀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차원에서는 통상문제의 경우 사후 대응책에 한계가 많아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사후약방문”적인 한계가 있다.

강의를 확대하였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국제화 증진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인데, 국제통상 전공이 이러한 영어 교육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보임으로써 이후 국제화 사업을 견인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처럼 국제통상 전공자들의 경우 영어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제2외국어까지 일정 수준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 바, 국내에서 국제 업무 분야에 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국제무대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단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해외의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비정부기구 등 기타 다양한 기관들에 진출하는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통상 전공이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과 견주어도 한층 경쟁력 있는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 교두보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7-05-13 심사일자: 2017-05-15 게재확정: 2017-06-11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7.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년사』.
- Bagwell, Kyle and Robert Staiger (eds.). 2016.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Volume 1A-1B*. Amsterdam: Elsevier.
- Bagwell, Kyle and Robert Staiger. 2002. *The Economics of the World Trading System*. Cambridge, MA: MIT Press.
- Bhagwati, J., A. Panagariya, and T. N. Srinivasan. 1998. *Lectures on International Trade*. 2nd edition. Cambridge, MA: MIT Press.
- Bhagwati, J., P. Krishna, and A. Panagariya (eds.). 2016. *The World Trade System: Trends and Challenges*. Cambridge, MA: MIT Press.
- Feenstra, Robert. 2015. *Advanced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Evidence*. 2nd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pinath, G., E. Helpman, and K. Rogoff (eds.). 2014.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ume 4*. Amsterdam: Elsevier.
- Park, Jee-Hyung. 2016. "Enforcement and Dispute Settlement." In K. Bagwell and R. Staiger (eds.),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Volume 1B*, 3-67. Amsterdam: Elsevier.

Academic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its Policy Contribution

Dukgeun Ah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Commerce” as an academic major was introduced primarily when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was first established twenty years ago and has evolved as an independent subject area of social science at least in Korea. For this remarkable development, uniquely nurtured experts with both academic understanding and practical experiences in trade policy areas—especially honed through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have played significant roles in promoting interdisciplinary curriculum contents with high policy applicability. Future tasks for furthe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include deliberating on its core curriculum, building a more comprehensive academic forum to incorporate interdisciplinary scholars, and fostering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ies both abroad and at home.

Keywords: international commerce, graduate studies, trade, international economics